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시·조직위원회, 올해 국제회의 주제 선정·구성방향 등 논의 '지역화 담론의 장' 9월 29~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개최

전 세계 사람·생태·사회적경제·지역화 전문가들의 담론의 장인 '제8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오는 9월 말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위원장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최근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올마당에서 앞으로 다가올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최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오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시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는 국제회의 주제를 향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

고, 회의 부제 및 세션별 주제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해마다 개최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기후위기와 지역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지역화 △지역화의 지속가능성 △지역화를 위한 전략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부제로 글로벌 자본주의와 세계화가 에너지·자원 낭비, 빈부 격차, 기후위기 등을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해왔다.

'기후위기와 지역화'를 주제로 열린 지난해 국제회의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에게 벌어지는 먹거리, 금융, 일자리 위협에 대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로컬푸드 대표 등 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올해 국제회의 관련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 그동안 개최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통해 형성된 지역화 담론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들로 도출되고 있다"면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상호 소통해 성공리에 제8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인 마을부엌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를 육성한다.

전주형 마을부엌 운영으로 식생활 개선 돕는다

시, 3~12월까지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로 건강한 식생활교육 진행

전주시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인 마을부엌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를 육성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전주형 마을부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부엌'은 전주푸드 등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과의 연계로 기존 식생활교육사업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모든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식생활교육 전주네트워크와 전주시사회협동조합, 전주푸드효천점 등 5곳과 연계해 추진된다.

먼저 식생활교육 전주네트워크는 마

을부엌을 통해 청년·학생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과 전통 음식의 가치를 공유하고, 조리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전주시의료사회협동조합은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 등을 상대로 증세에 맞는 식단구성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에 나선다.

김치문화관과 전주푸드 효천점, 평화사회복지관도 각각 중년남성 퇴직자와 채식인, 조손가정 등 시설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교육에 나선 예정이다.

시는 전주형 마을부엌 운영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

음을 치유하고, 성인병 극복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마을부엌 시범사업으로 총 4그룹을 운영했으며,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공동체로 거듭나게 됐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공동체 사업이 마을부엌이라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의 고장에 걸맞은 전주가 마을부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비 지원

전주시·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 활성화 사업 참여 동호회 모집

전주시와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는 21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2022년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동호회를 1차 공개 모집한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전주시민으로 구성된 동호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동호회 간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향유와 건강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

업이다. 올해는 전주지역 5개 생활문화센터가 네트워크를 생생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무용·문학·미술·사진·연극·서예·음악전통·영화·미디어·건축·공예 등 문화예술 분야 5인 이상 구성된 전주 지역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다.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는 1차 공개모집을 통해 동호회 신규등록, 동호회 활동지원, 지역교류지원, 프로그램지

원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동호회는 모집기간 내에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 생활문화팀(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90 2층)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jjcc5@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 누리집(jeonjuculture.or.kr)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47-8890)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문화활동을 위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야호책놀이 프로그램' 풍성

시, 3월 15일~6월 12일까지 11곳서 책놀이·유아미술·과학특목 등 20개 과목 진행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jjcc5@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 누리집(jeonjuculture.or.kr)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47-8890)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문화활동을 위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에서는 '신나는 책놀이터, 책이랑 보드랑'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완산도서관에서는 '오감만족 생태놀이, 유아미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또 △그림책과 함께하는 요리, 책이랑 놀아요(삼천) △그림책과 신나는 책놀이, 과학특목(서신) △창의GO!보드GO!, 책이랑 놀이랑(평화) △유아미술, 재미있는 이야기 한국사(효자) △아동미술, 책놀이(송천) △힘고 재미있는 하브루타, 북적북적 즐거운 책놀이(아중) △종이접기와 클레이아트, 보드게임(죽구름) △그림책과 함께하는 생태놀이, 하브루타 독서모임(건지)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 어린이들은 매 수업마다 주제 도서를 활용해 만들기와 그리기, 요리하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단 현재 개방형 창의도서관 공사가 진행되는 인후도서관의 경우 추후 재개관 일정에 맞춰 야호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더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호책놀이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